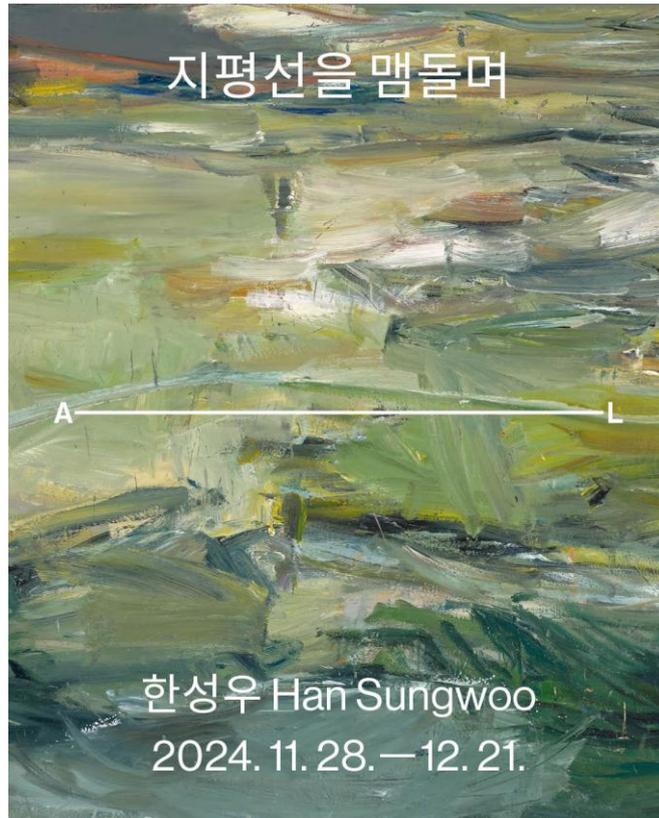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10쪽

《지평선을 맴돌며》



-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한성우 개인전
- ‘장면’과 ‘풍경’으로 구성된 총 23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의 1층과 2층 공간에 나뉘어 전시
- ‘풍경’은 ‘장면’에 비해 형상이 드러나고 구성적인 반면, ‘장면’은 붓질과 물감의 물성이 두드러짐
- 풍경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 그리기의 행위와 과정에서 형성되는 풍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시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지평선을 맴돌며》

참여작가: 한성우

일 정: 2024년 11월 28일(목) - 12월 21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성우의 개인전 《지평선을 맴돌며》를 선보인다. 전시작은 총 23점으로 풍경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 그리기의 행위와 과정에서 형성되는 풍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시이다. 출품작은 ‘장면’과 ‘풍경’이란 두 카테고리로 나뉜다. ‘풍경’은 ‘장면’에 비해 형상이 드러나고 구성적인 반면, ‘장면’은 붓질과 물감의 물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두 카테고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전환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일부 작품은 기억과 감각의 파편을 통해 현실과 상상 사이의 미묘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재현이 아닌 그리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풍경으로, 관객에게 각자의 내면 풍경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든다. 본 전시는 그리기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자, 관객에게 끝없이 확장되는 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시이다. 지평선은 도달할 수 없는 경계에 대한 탐구이자, 불완전한 상태를 품은 회화적 풍경의 시적 은유이다.

○작가 소개

한성우 (b.1987)

한성우(b.1987)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이나 장소를 주제로 작업을 한다. 그러나 대상 그 자체를 재현하는 대신, 인적이 사라진 공간이나 오래된 벽과 바닥, 혹은 신체에 남겨진 흔적 등 전경에 가려진 이면에 더 관심을 둔다. 작가는 기존의 의미나 용도가 사라진 자리에 개인의 주관적 감상을 투영해 눈앞의 풍경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현하고자 한다. 2020년부터는 유행이 지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꽃무늬 벽지나 고정되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환절기를 주제로 점차 추상화된 화면을 구축해왔다. 근래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가 특유의 마티에르(matière)를 보다 알게 엮거나, 같은 대상을 두고 구상에서 추상까지 여러 캔버스에 나누어 작업해보는 등 재현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에이라운지, 서울(2023, 2017); 송은아트큐브, 서울(2020); Space BM, 서울(2015); 윌링앤딜링, 서울(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Books and Things», Helen J Gallery, 로스앤젤레스(2022); «Summer Love», 송은, 서울(2022); «몸짓을 따라가며, 주변을 배회하고, 중심에 다가서려는», 학교재 청담, 서울(2020); «Dramatic Scenes», 스페이스 K, 과천(2017) 등 국내외의 전시 공간에서 열리는 유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3년에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에 입주할 예정이다.

○ 전시 서문(일부 발췌)

한없이 변화하는, 물질과 이미지, 사이의 감각
weathering world, weathering canvas

- 한성우의 그림에 대하여

허경(철학학교 혜음)

그림, 심미적인 것을 향한 절박함

한성우는 캔버스 앞에 서서, 바라보고, 선을 긋고, 면을 만들고, 때로 어떤 형태를 상상하고 그려낸다. 그리고, 선을 다시 긋고, 이전 선을 지우고, 면을 변형시키고, 형태를 부순다. 한성우는 그리고 엮고 덧쌓고 무너뜨리고 흐트러트린다. 한성우는 그리고 지우고 드러낸다. 한성우는 물감을 엮고 쌓는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한 만남에서, 작가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의미로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는 글을 한 편 쓴다면, 그 글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겠는가? 작가는 한참을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 **무너지며 쌓여가고, 사라지며 되돌아오는**. 한성우는, 그리는 동시에 지우는, 무너뜨리는 동시에 쌓는, 사라지게 만드는 동시에 되돌아오게 만드는, 화가이다. 모든 좋은 화가들처럼, 한성우는, 이런 면에서, 만드는 자인 작가(作家)인 동시에 파가(破家)이다.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모순은 논리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현실의 실제 세계에서 모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함께만 일어난다(*everything every where all at once*). 이 세계 전체가 늘 공-현존(共-現存, co-existence)이다. 그림이 그림이고 지움이 지움이기만 하다는 생각은, 이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부합되지 않는다. 언어적 차이화, 개념적 구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그런 2분법은, 다만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려는, 하나의 생각, 방법이다. 그림이 그림이고 지움이 지움이기만 하다면, 이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은 파괴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실체가 아니라, **사이**에서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성우는 이 피어남, ‘사이’의 이 피어남, 공현존의 이 피어남을 그린다. 한성우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보다 정확히는, **아름다움이 스스로 드러나길 바라며**, 붓을 옮기고 선을 긋고 면을 만들고 때로는 형태를 만들었다가 때로는 부순다. 마치 바닷가에서 자기 멋대로 모래성을 쌓았다 부수어 버리고 마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세계를 마음대로 창조하고 또 부수어 버리는 시바(shiva) 여신처럼, 한성우는, 그린다, 지운다.¹

재현이 아닌, 구상도 추상도 아닌

¹ 모든 화가는 그림 그리는 행위, 그 시간 자체가 좋아서 그림을 그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성우 역시 그런 행복을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사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러한 느낌에 근본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내게는 이것이 한성우라는 작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는 남동생과 일곱 살 차이가 나서 사실상 혼자 큰 거나 다름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의 그 연필 냄새, 흑연 냄새, 그 북어나 주전자를 볼 때, 너무 좋았다. 그걸 너무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다. 너무 좋았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설레고 행복했다, 지금도 비슷하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내가 그릴 그림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다. 이미지에 대한 욕망. 내가 좋아하는 그림의 말 없음, 침묵. 그림이 내게 주는 자유로움. 무한한, 많은 가능성이.” 이하, 특별한 인용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모든 인용은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와 내가 나눈 대화로부터 따온 것이며, 대화의 시기는 2024년 7-11월이다. 물론, 이 글의 모든 내용은 발표 전 작가가 미리 읽고, 인가(認可)를 거친 것이다.

회화에서, 이는 구상(具象, figuratif)이다. 추상(抽象, abstract)은 이런 면에서 순수 감각의 논리를 따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감각작용 자체의 논리를 따르는 추상을 ‘내러티브 구조를 따르는 구상으로부터 독립한’ 무엇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추상은 **텍스트로부터 독립한 이미지의 자율성**을 상징한다. 추상은 - ‘제목 없음’(無題)이라는 제목으로 대변되는 - 의미로부터 독립한 이미지의 자율성을 상징한다. 추상이란 비(非)-구상이다. 추상이란 글자 그대로 아님(非), 곧 ‘빼기’(-)이며, 나아가 ‘추출’(抽出, abstraction)을 의미한다. 추상이란 회화로부터 그 구체적 대상, 곧 그려진 대상을 뺀 것, 또는 대상으로부터 추출한 ‘무엇’을 그린다. 이는 곧 추상이 더 이상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무엇이며, 따라서, 재현적 구상과는 다른, 자신만의 또 다른 논리를 갖는다는 말이다. 추상은 서사 곧 의미의 결여이며, 이는 텍스트와 의미로부터 독립한 이미지 자체의 **‘말 없는’ 세계**를 상징한다(Lieder ohne Worte). 자, 이러한 일반론을 배경으로 할 때, 한성우에게 구상과 추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성우의 작업은 추상일까, 구상일까? 그렇다면 한성우 자신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작업을 무어라 말할까? 나는 작가에게 직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은 이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당신의 작업은 구상인가 추상인가?

“저는 제 작업을 구상과 추상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작업 과정에서 추상과 구상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느낍니다. 제 작업은 구상이며 추상인, 추상이며 구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는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선, 추상과 구상이, 세계의 사태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 의지가 빚어낸 인식-지각의 틀임을 기억하자. 이는, 칸트가 잘 밝혔듯이, 이른바 자연과학의 법칙이 자연 그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 관념의 틀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실, 한성우의 그림은 2014-2015 년의 **목탄 드로잉 작업 이후** - 작업복, 시든 꽃, 손 등을 그린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 거의 모두 ‘추상’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게는 한성우의 그림이, **가까이서 보면 추상, 멀리서 보면 구상처럼** 보인다(사실은 모든 구상화가 아주 근접해서 보면 예외 없이 모두 추상으로 보이겠지만). 추상과 구상은, 불교에서 말하듯, 방편적인 구분이다.

바람에 닳은 세계, 물감에 닿은 캔버스

이번 2024 년 11 월 에이라운지의 개인전 <지평선을 맴돌며>에 나온 그림들을 한성우는 ‘장면과 풍경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냥 보면 별로 그렇게 장면이나 풍경으로는 꼭 보이지 않는 이 그림들에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라는 나의 질문에 작가는 이런 답글이 담긴 톡을 보내왔다.

“어딘가의 풍경을 그린 것은 아니고, 그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을 풍경 혹은 장면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풍경은 좀 더 공간감이나 바라보는 시점이 원경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 구성적인 측면들이 강하고요, 장면은 좀 더 그림의 제스처나 붓질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움직임이나 리듬, 힘의 방향 같은 것들이 더 주(主)가 되는 것들입니다.”

데이비드 실비언(david sylvian)의 <weathered wall>이라는 곡이 있다. weather 는 물론 명사로는 ‘날씨’이지만, 동사로서 ‘날씨의 변화를 겪(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를 수동형으로 쓰면 ‘날씨의 풍화(風化) 작용을 겪은’, ‘바람을 탄’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은 직역을 하면 ‘날씨에 닳은 벽’, ‘세월의 풍화작용을 겪은 낡은 벽’, 나아가 **‘빛바랜, 색바랜’** 벽이라는 의미이다. 이 weather 동사는, 말하자면, 가령 ‘양념 맛이 배어든, 숙성된’이라는 의미의 동사 season 과도 같은 맥락의 단어이다. 나는 이 글을

A-L

쓰기 위해 한성우와 만남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한성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노래의 제목과 비슷한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수아 줄리앙의 매우 아름다운 책 『고요한 변화』 (*les transformations silencieuses*, 2011)가 잘 말해주듯,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풍경은, 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늘 풍화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은 바람의 흐름에 닿아, 바람의 흐름에 닳아, 풍화되고 있다.

이제, 화가는 바람, 또는 말하자면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성우의 붓질은 공기의 흐름, 곧 바람이 발생시키는 풍화작용과 같은 것이 되고 싶어 한다. 붓질이 공기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지만,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람이 아니라 인간인, 화가가 세계와 풍경과 캔버스에 마치 **바람처럼** 작용하기 위해서는, 마치 바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한성우가 말하는 화가의 시간, 관조의 시간, 거리두기의 시간일 것이다. 한성우가 말하는 ‘시간의 흔적’이란 모든 그림은 그 그림 앞에서 보낸 화가의 시간, 그 몸짓을 보여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화가는 자신이 그리는 대상, 사물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야 한다. 한성우가 시간의 화가라는 말은 한성우가 시간을 그리는 화가이며, 자신의 그림 속에서 시간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리는 화가라는 말이다(시간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 **현재의** 풍화작용을 의미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시간과 그 풍화작용을 그리는, 한성우의 붓질은 이렇게 **늘 한없이 변화하는, 물질과 이미지, 사이의 감각**을 그려내며,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당신과 내 앞에서, 풍화되는 세계, 풍화되는 캔버스(*weatheringworld, weatheringcanvas*)를.

○ 대표 작품



장면 1 *Scene 1*

2024

Oil on canvas

218.2 × 290.9 cm



장면 10 *Scene 10*

2024

Oil on canvas

45.5 × 60.5 cm



장면 4 *Scene 4*

2024

Oil on canvas

117 × 91 cm



풍경 8 *Landscape 8*

2024

Oil on canvas

27.3 × 2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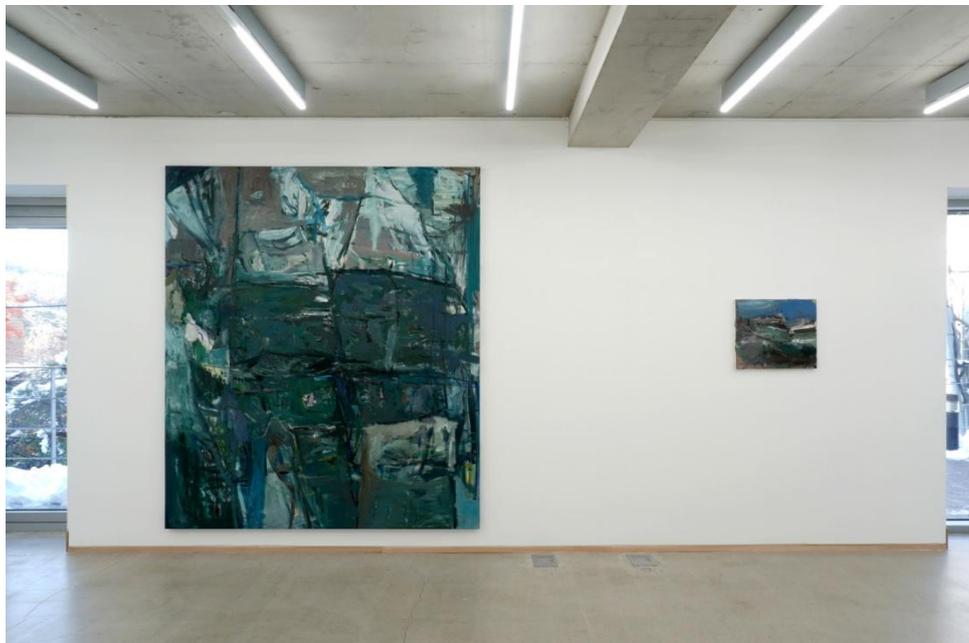
다가가는 *Drawing for Landscape*

2024

Watercolor on paper

30.5 × 24.5 cm

○ 전시 전경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